

운전면허 취소자 대서면 이후 광주·전남 표정

# “면허 다시 따자” 응시 폭주 도로주행 시험 열흘씩 대기

지난 3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남지부(이하 도로교통공단) 1층 대강의실. 165.3㎡의 대강의실에는 150여 명의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생들로 발디딤 틈이 없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대서면이 이뤄지면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사람들로 이곳 강의실은 매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면허시험 재 응시자의 경우 응시 전 6시간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담양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서면 이후 사전 교육을 받은 접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수하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다. 교육생 정모(31)씨는 “인터넷 예약 접수를 하는데, 교육생이 한꺼번에 몰려 4시간 만에 겨우 접수했다”며 “광주와 순천 교육장에는 교육생이 꼭 차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모두 1만5천392명. 이 중 28.7%인 4천15명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을 이수했다. 사면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54.4명의 교육생이 몰린 셈이다.

이런 평상시 하루 평균 7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교육생이 대기 물러자 월·수·금요일에만 실시했던 면허시험 재응시자 사전교육을 휴일(주말 제외)까지 실시하고 있다.

## 사전교육 4시간만에 접수

하지만, 이마저도 밀려드는 재응시자들을 소화해 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김중환 교육홍보팀장은 “사면 초기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전화 폭주하고 교육생들로 북적였다”며 “아직도 문의전화량 평소 대비 2배 이상 정도 걸려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남지부 1층 로비가 운전면허 특별강연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 몰려든 재교육 대상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는데, 그나마 지금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나주시 삼영동 전남면허시험장. 사전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이 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대기 물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 만큼 크게 붐비지 않았다. 공단 측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시험장 혼잡도를 공개해 분산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에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렸다. 도로주행 시험 접수 코너에선 대기 인원이 100명이 넘었다. ‘700번’이라

고 쓰인 번호표를 손에 꼭 쥐고 있던 박모(34)씨는 “30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628번 차례”라며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나왔는데 오늘 일을 모두 처리할 수가 할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 평소보다 2배 이상 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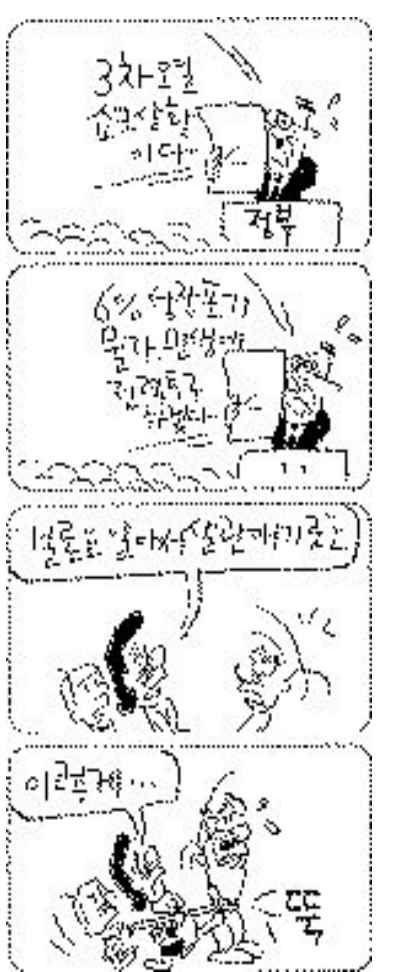
6·4 사면조치 후 운전면허 재 응시자를 포함한 면허시험장을 찾은 인원은 모두 1만8천명. 하루 평균 800~900명이 몰려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월4일~30일까지) 9천 400명보다 2배 증가할 수 있다.

전남면허시험장 신금순(여·35) 팀장은 “평소 5분이면 족했던 단순 면허발급에 지금은 30분 이상이 걸린다. 더구나 장애 가능시험 후 2~3일 만에 볼 수 있었던 도로주행 시험도 지금은 9~10일을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재 응시자 282만8천917명을 특별사면 조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548) 김중두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 “5·18부상자회 임시총회 무효”

### 광주지법 “절차상 문제”

회원 간 내부 갈등 끝에 선임된 5·18 구속부상자회 임원진에 대해 법원이 적부정지를 시킨 데 이어 임원진을 선출했던 임시총회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구속부상자회 내부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4일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나모(46)씨 등 구속부상자회 회원 16명(사) 5·18 구속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연행·구금·수배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구속부상자회 회원 자격을 주

도록 하는 등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국가보훈처의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결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효력 없는 정관’을 통해 이뤄진 임원 선출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관상 회원 602명 중 3분의 1가량만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점 ▲정관 회원 모두가 참석했을 경우 결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무효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회원 자격 범위를 넓히기로 정관을 개정한 뒤 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으나 나씨 등 일부 회원들이 반발해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수입 쇠고기 반출...미국산은 아직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 대표는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며 “쇠고기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E 수임상 관계자가 냉동창고에 쌓인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반출하고 있다. 광주지역 수입고기 물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 대표는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며 “쇠고기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김경준씨 1년6개월 선고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 의혹 폭로가 계속돼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불신이 야기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후텁지근 주말·휴일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5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

휴일인 6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0

도까지 올라가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겠으나 나들이객들은 운전 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지검앞 ‘촛불 인간띠’ 충돌 우려

## 오늘 항의 방문 계획...경찰 “원천봉쇄”

광주지역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5일 오후 7·5 국민승리의 날 촛불집회 이후 광주지검앞에서 촛불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7·5 국민승리의 날’ 촛불집회 이후 광주지검까지 행진을 벌인 뒤 지검 청사를 둘러싸는 ‘촛불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원 주변 200m

이내는 어떠한 집회도 허가되지 않는 지역으로 인간띠 잇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히며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날 버스과 정전중대를 동원해 광주지검 앞 도로를 미리 차단하고, 시위대의 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시국회의 측은 “단순히 항의를 표시하는 행동일 뿐, 평화적인 촛불 인간띠 잇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찰이 항의표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경대응을 할 경우 평화적인 집회를

희망하는 참가자들도 더이상 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5일을 ‘7·5 국민승리의 날’로 명명하고 이날 오후 5시 광주역에서 사전집회 후 금남로까지 평화행진을 벌일 계획이며, 오후 7시부터는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광주지검까지 행진해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금남로 촛불집회에는 해남, 무안, 구례 등 전남지역 시·군 대표위원에서도 참석의사를 밝히는 등 ‘6·10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에서도 5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날 집회에

는 일반시민과 정치권, 종교계, 농민,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과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4, 5일을 ‘1박2일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원들의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전원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 역시 계속될 예정이며, 광주 병기독교대학의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종교계 인사들도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밝혀 5일 집회가 ‘쇠고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대책회의 등 불법 주도” 경찰 시범조치 적극 검토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공무원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촛불집회 초기인 5월 6일부터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실시한 두 단계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두 단체의 지도부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2MB탄핵투쟁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문건들과 피켓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촛불 보호해야” 엠네스티 조사관 입국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비정기 조사관이 촛불집회 관련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4일 입국했다.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이날 오전 11시5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개인적으로 촛불집회는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로 보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주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촛불 참여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 인권 침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4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은 5월 경찰서를

방문해 쇠고기 반대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B경위는 해당 고교 교감, 학생부장,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수업 중이던 A군을 불러 내 집회신고 이유와 부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조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를 통해 A군의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학교측은 A군에게 “B경위를 만난 시각이 수업시간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관련 경찰서장을 서면 경고하고 B경위 등 경찰관 5명을 징계조치했다. /연합뉴스

## 김남일 광주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광주시의원 김남일(60)의 원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4일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 거액의 가로채고 취은행 취임 알선비로 1천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의 구속된 김남일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서울 차비 마련러려 초등생 납치

○내달 초등 학생들을 납치한 뒤 이들을 볼모 삼아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무인승차를 한 간 근 10대가 쇠괴망.

○4일 광주 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미성년자 약탈 및 감금 혐의로 구속된 이모(15)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경 광주 동구 불로동 모 학원 앞에서 귀가중이던 백모(12·초등 5년)군 등 2명을 협박·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강제추행한 혐의.

○이군은 이것도 모자라 이들을 택시에 태운 뒤 형제인 양 행세하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급히 서울로 가야한다”고 택시 기사를 속여 서울역까지 간 뒤 백군 등을 남겨둔 채 도주.

○이군은 소년부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공범 김군인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납치의심 신고 접수 이후 곧바로 주변 탐문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범행 발생 장소를 인위적으로 검거.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푹푹해도 참아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구분	기온
광주	23~30℃
목포	22~26℃
여수	22~26℃
완주	21~28℃
구례	22~30℃
해남	22~29℃
강진	22~28℃
고흥	22~28℃
순천	22~30℃
영광	22~27℃
진도	22~30℃
전주	23~31℃
남원	22~30℃
홍산도	18~25℃

7월 5일 (음 6월 3일) 날씨

◇전국날씨

평양	맑음	강릉	흐림
해주	흐림	춘천	흐림
서울	흐림	강릉	흐림
인천	흐림	청주	흐림
대전	흐림	울릉도	흐림
대구	흐림	독도	흐림
광주	흐림	여수	흐림
부산	흐림	제주	흐림

▲달출 07:29 ▲달입 21:40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2/30	22/31	22/31	22/31	21/30	22/29